

클래식 명곡 산책 - 1 - 혼



그림 1. 내추럴 혼과 프렌치 혼 / 출처: www.paxman.org.uk

옛날 옛적 사냥이나 전쟁을 할 때 신호를 위해 나팔을 불곤 했죠. 이들은 동물의 뿔의 속을 제거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뿔을 뜻하는 단어 'horn'이 그대로 나팔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혼은 이후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길이도 길어지면서, 정확하고 다양한 음정을 낼 수 있게 되었고, 금관악기의 하나로 편입이 되었죠.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혼은 그저 긴 관이 둘둘 말린 형태였는데요, 오늘날 이 악기를 '내추럴 혼'(Natural horn)이라고 부릅니다. 이 악기가 낼 수 있는 음정은 관의 길이로 결정되었죠. 그래서 다양한 음정을 내기 위해 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속품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불편했죠. 그래서 관의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밸브를 달았는데, 이것을 '프렌치 혼'(French horn) 혹은 '밸브 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대부분 프렌치 혼으로 연주하지만, 간혹 시대 악기 연주를 추구하거나 내추럴 혼의 직선적인 음색과 독특한 음정을 얻기 위해 내추럴 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혼 협주곡 2번 내림마장조 Horn Concerto No. 2 in Eb major, K.417 (1783)



그림 2.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 출처: commons.wikimedia.org

모차르트는 관악기를 위한 협주곡을 여럿 남겼습니다. 피아노 협주곡이나 바이올린 협주곡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클라리넷 협주곡>만큼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관악기보다도 가장 많은 협주곡을 작곡한 악기는 다름 아닌 혼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1783년부터 1791년까지 혼 협주곡을 네 곡이나 완성했으며, 이외에도 두 개의 협주곡이 완성되지 못한 단편으로 남아있습니다.

모차르트가 혼을 위한 협주곡을 많이 작곡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가깝게 지냈던 요제프 로이트겔(Joseph Leutgeb, 1732~1811)을 위해서였습니다. 잘츠부르크와 빈에서 활동했던 로이트겔은 기교가 뛰어난 혼 연주자로 명성을 떨쳤는데, 그를 위해 작곡된 만큼 기교적으로 매우 어렵게 작곡되었죠. 특히 당시에는 밸브가 없는 '내추럴 혼'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트릴이나 빠른 패시지 등을 연주하기 위해 입술 트릴과 빠른 텅킹, 그리고 음계 밖의 음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핸드 스톱핑 등 극히 어려운 기교들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1783년에 작곡된 <혼 협주곡 2번>은 번호는 2번이지만 완성된 네 곡의 혼 협주곡 중 가장 먼저 작곡되었습니다. 모차르트는 평소에 저급한 농담을 즐겨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곡의 자필본에 적혀있는 헌사에서 그의 장난기가 배어있습니다. "1783년 5월 27일, 빈에 있는 로이트겔과 엉덩이, 황소, 바보에게 연민을 가지며, 볼프강 아마데(Amadè: Amadeus의 프랑스식 표기) 모

차르트가(작곡하다).” 무려 24살이나 연하인 모차르트의 이러한 빈정대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곡은 멜로디의 천국입니다. 모차르트는 1악장에 빠르기말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빠르고 장엄하게’(Allegro maestoso)라고 표시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상쾌하게 시작하는 관현악의 서주 후에 독주 혼이 주제를 연주하고, 발전부에서는 단조로 바뀌어 대조를 이룹니다. 2악장 ‘느리게’는 딸림조인 내림나장조로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혼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줍니다. 3악장은 6/8박자의 론도로서, 사냥 나팔을 연상케 하는 선율에 기쁨과 위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짧은 코다에서 템포가 빨라지면서 전곡을 마무리합니다. 네 개의 혼 협주곡은 관현악에서 미묘한 편성의 차이를 보이는데, 혼 독주에 알맞은 관현악 음향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혼 협주곡 2번>의 경우, 바순이 빠져있고 독주악기와 같은 악기인 혼이 두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프란츠 단치 Franz Danzi (1763~1826)

혼 소나타 내림마장조 Sonata for horn and piano in Eb major, Op. 28 (1805)



그림 3. 프란츠 단치 / 출처 : www.releases.kuk-art.com

단치는 이탈리아인 첼리스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독일 만하임 부근에서 활동했던 탓에, 단치는 슈베칭겐에서 태어나 평생을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단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첼로를 배웠으며, 10대부터 뛰어난 첼리스트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만하임에서 활동을 시작한 그는 뮌헨으로 옮겨 보다 큰 무대에서 활약했지만, 카펠마이스터(음악감독)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다소 떨어졌던 슈투트가르트에서 카펠마이스터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칼스루에로 옮겨 숨을 거둘 때까지 그곳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작곡가이기도 했지만 그 명성은 연주자로서의 명성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페라와 관현악, 교회음악, 실내악 등 여러 장르의 곡을 많이 남겼으며, 모차르트와 베토벤 등의 조연자로서 많은 영향을 주면서 초기 낭만 음악의 기틀을 다졌죠. 일반적으로 작곡을 하는 연주자들은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에 집중하여 작곡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치는 첼리스트임에도 현악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악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연주되는 단치의 곡도 첼로곡이 아닌 목관을 위한 곡들이랍니다.

목관 앙상블에는 금관악기인 혼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단치는 목관악기뿐만 아니라 혼을 위해서도 소나타와 콘체르티노, 협주곡 등 다양한 규모의 여러 작품들을 남겼죠. 그 중 하나인 <혼 소나타, Op. 28>은 음악가로서 가장 크게 명성을 얻었던 뮌헨에서 부카펠마이스터로 활동했을 때인 1805년에 작곡되었습니다. 1악장은 사냥 나팔을 부는 듯한 팡파르로 시작을 알리며, 곧 서정적인 아다지오와 알레그로로 이어집니다. 낭만시대에 유행했던 아다지오-알레그로의 초기 형태에 가까운 형태죠. 2악장 라르게토는 감수성이 짙은 멜로디로 차분하게 연주되며, 마지막 빠른 3악장은 화려하면서도 당당한 혼의 음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시의 혼은 오늘날의 밸브 혼과 같이 자유롭게 모든 음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아노가 음악을 리드하며, 혼의 특징적인 음색이 잘 드러나도록 작곡되어있습니다.



❖ 로베르트 슈만 Robert Schumann (1810~1856)

네 개의 혼을 위한 소협주곡 Konzertstück for 4 horns and orchestra, Op. 86 (1849)



그림 4. 로베르트 슈만 / 출처 : en.wikipedia.org

슈만의 <네 개의 혼과 관현악을 위한 소협주곡>이 완성된 1849년은 슈만의 건강과 정신 상태가 매우 좋았던 때로, ‘가곡의 해’라고 불리는 1840년에 이은 다작의 해였습니다. 혼을 위한 작품으로 혼과 피아노를 위한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Op. 70>과 네 개의 혼과 남성 합창을 위한 <다섯 개의 사냥 노래, Op. 137> 역시 이 해에 작곡되었습니다. <네 개의 혼 소협주곡>의 초연은 이듬해 2월 25일에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정적인 분위기와 독창인 화성을 가진 <소협주곡>은, 당시 새로 개발된 밸브 방식의 혼을 위해 작곡된 최초의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관현악은 네 개의 독주 혼과 밸런스를 위해 이례적으로 피콜로와 두 개의 트럼

펫, 세 개의 트롬본, 두 개의 팀파니를 요구하는 큰 편성을 사용했습니다. 관현악에는 두 개의 내추럴 혼이 편성되어있는데, 독주 혼이 연주할 때는 연주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1악장은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관현악이 연주하는 두 개의 화음으로 시작하며, 곧바로 네 개의 독주 혼이 포르티시모로 공격적인 주제를 연주합니다. 네 개의 독주 혼은 서로 엮이면서 진행하며, 관현악의 목관악기들도 비슷한 유형이 나타납니다. 독주 혼의 음역은 당대 혼 작품들에 비해 높게 되어있는데, 특히 제1혼은 재현부에서 극도로 높은음을 요구하죠. 두 번째 '로망스' 악장은 첼로로 시작하며 곧 오보에가 등장합니다. 독주 혼들은 서로를 모방하며 사랑스럽고 경쾌한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이 악장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코랄 스타일의 중간 부분으로, 고음의 현과 독주 혼이 첼로의 아르페지오를 배경으로 연주되며 지고지순한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악장은 재치 있고 활기 넘치는 피날레로, 힘이 넘치는 짧은 관현악 서주에 이어 제1혼이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며 시작합니다. 독주 혼과 관현악의 대화는 급히 발전하며, 중간 부분에 이르면 2악장의 중간 부분을 연상케 하는 코랄을 듣게 되죠. 여기서 슈만은 여러 악기가 동일한 선율을 연주하게 하여 보다 깔끔하고 호소력이 강한 선율을 그립니다. 이 곡은 1851년에 개정되었는데, 1849년 초판에는 없는 높은 A음이 마지막 부분에 여러 번 등장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차이입니다.



🎻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1833-1897)

혼 삼중주 내림마장조 Trio for horn, violin and piano in Eb major, Op. 40 (1865)



그림 5. 요하네스 브람스 / 출처 : commons.wikimedia.org

브람스는 함부르크에서 더블베이스 연주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그리고 혼을 배웠습니다. 브람스가 혼, 바이올린, 피아노라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편성의 실내악으로 이렇게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다양한 악기를 다뤄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곡은 브람스의 어머니가 세상을 뜬 지 1년 후에 작곡되어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이 녹아있습니다. 그리고 혼은 어렸을 때 배웠던 악기로, 이 악기에 그의 어렸을 적의 모습이 투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브람스는 이 작품을 밸브 혼이 아니라 내추럴 혼을 위해 작곡했습니다. 어둡고 애잔한 분위기와 음량의 밸런스, 음색의 조화를 위해 내추럴 혼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브람스가 이 곡의 첫 주제는 숲속을 걷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온 사냥 나팔소리였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내추럴 혼이 사냥 나팔을 상징하는 악기이기도 했죠. 또한 브람스가 어렸을 때 배웠던 혼이 내추럴 혼이었다는 것도 그 이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음정은 내추럴 혼에 맞게 전체적으로 Eb의 배음 위주로 선택되어있습니다.

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밸브 혼으로 연주하고 있죠.

이 곡은 모두 네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신고전주의 작곡가임에도 1악장을 소나타 형식이 아닌, 느리게-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구성으로 작곡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교회 소나타' 형식을 연상시키죠.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주제인 만큼, 전체적으로 애도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1악장은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듯 차분하며, 2악장은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합니다. 3악장에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어머니를 애도한 후, 4악장은 앞에서 사용되었던 주제들을 다시 사용하면서 애도 후 삶의 기쁨을 회복합니다.



🎻 에이토르 빌라-로부스 Heitor Villa-Lobos (1887-1959)

세 대의 혼과 트롬본을 위한 쇼로 4번 Chôro No. 4 for 3 horns and trombone (1926)

빌라-로부스는 가장 중요한 브라질 작곡가지만,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등 몇 곡을 제외하고는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홉 곡의 '브라질 풍의 바흐' 시리즈와 열여섯 곡의 '쇼로' 시리즈를 비롯하여 열한 개의 교향곡, 열일곱 개의 현악사중주, 아홉 개의 오페라, 그리고 수많은 협주곡과 실내악곡, 기타곡, 피아노곡, 성악곡 등 그야말로 '무수한' 곡을 썼습니다. 빌라-로부스의 전기를 썼던 리사 페퍼콘은 그의 곡이 1,200곡에 이른다고 말했죠.



그림 6. 에이토르 빌라-로부스 / 출처 : www.biography.com



그림 7. 쇼로 연주자들(칸디도 포르티나리 1942년도 작품) / 출처 : blogs.wfmt.com

이 중 빌라-로부스의 가장 중요한 곡은 ‘브라질 풍의 바흐’와 ‘쇼로’ 시리즈입니다. 이 곡들은 독특한 편성으로 브라질 혹은 라틴 아메리카의 민속적인 요소를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실재하는 민요를 주제로 사용하거나 차용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빌라-로부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민요풍의 창작물입니다. 하지만 ‘쇼로’ 시리즈는 바흐를 내세워 고전적인 형식을 강조한 ‘브라질 풍의 바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고전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의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또한 젊었을 때 활동했던 카페 뮤직과 인디언, 블루스, 흑인영가, 아프리카 리듬, 대중음악 등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쇼로’라는 제목은 ‘흐느낌’, ‘울음’ 등의 의미를 가진 포르투갈어로, 브라질 거리의 음악가들이 아프리카와 유럽의 악기로 연주하는 자유롭고 즉흥적인 음악을 의미합니다. 이 음악을 브라질의 음악으로 생각한 빌라-로부스는 이 시리즈를 구상하여 1920년부터 1929년까지 독주부터 관현악에 이르는 다양한 편성으로 총 열여섯 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중 네 번째 곡인 세 개의 혼과 트롬본을 위한 <쇼로 4번>은 1926년에 작곡되었습니다. 빌라-로부스는 시리즈를 작곡할 때 작곡한 순서가 아닌, 전체적인 구상에 따라 번호를 붙이곤 했는데, 그래서 이 곡이 작곡된 순서도 네 번째가 아닌 여덟 번째가 됩니다. 같은 음색을 가진 세 개의 혼은 유기적인 흐름과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내며, 하나의 트롬본은 자신의 멜로디로 이들과 맞서거나 혼 트리오의 저음 반주를 맡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화음과 이국적인 화성진행이 만드는 신비로움, 그리고 따뜻한 금관의 음색이 감싸 안는 포근함이 가득하며, 후반부에는 대중적인 재즈 풍의 브라스 밴드를 연상케 하는 부분도 등장하면서 긴장감을 해결합니다.



🎻 존 하비슨 John Harbison (*1938)

여명의 음악 Twilight Music for horn, violin and piano (1985)

1938년생으로 현재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존 하비슨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1954년 16세의 나이로 MBI 재단의 학생 작곡가 상을 받았을 정도로 일찍부터 작곡에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과 베를린 음대, 프린스턴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했으며, 미국의 중요한 작곡가였던 월터 피스틴과 로저 세션스로부터 배웠습니다. MIT의 교수를 지냈으며, 실내악부터 관현악, 합창곡 등 많은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1990년에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작곡 신조를 묻는 질문에 “각 작품들이 서로 다르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분명하고 신선하며 거대한 설계를 하고, 전통을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림 8. 존 하비슨 / 출처 : nashvillepublicradio.org

1985년 작품인 <여명의 음악>은 혼과 바이올린, 피아노의 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혼과 바이올린은 거의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편성은 매우 드물지만, 이전

에 브람스와 쇤베르크 리게티의 성공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여명의 음악> 역시 이 편성을 가진 곡으로서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히며, 악장 수도 이들과 동일한 네 악장으로 구성되어 일종의 전례를 따르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1악장은 서정적이고 자유로우며, 2악장은 어떠한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듯합니다. 3악장 ‘안티폰’은 르네상스의 음악을 연상케 하는 멜로디로 혼과 바이올린이 대위적으로 교차하면서 진행합니다. 하비슨은 이 신비스러운 선율에서 현대적인 화음을 이끌어내죠. 4악장은 느리고 선율적이지만, 편안하게 해결하기보다는 고음의 바이올린과 저음의 혼이 모호한 공간을 만들면서 신비로운 긴장을 유지한 채로 마무리합니다. 🎧

